

## EU 집행위원회, 건축물 전 생애주기 탄소 감축 가이드라인 발표

해당국가	EU	기관(기업)	유럽 집행위원회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건축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

### □ 환경총국은 'Life Cycle Approaches to Decarbonise European Buildings' 발간하여 회원국과 건축 전문가에게 탈탄소 건축물 가이드 제시

- 운영 단계 에너지 사용뿐 아니라 자재 생산·시공·철거 단계 배출까지 포괄하는 'Whole-life carbon' 개념을 EU 정책에서 본격 운용화
  - 자재·에너지·건축공간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을 통합하는 접근 원칙을 제시하며 설계부터 철거에 이르는 건축물 전체 생애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명시
  - EU 건물 재고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약 50%가 자재 공급·시공·운영 단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전 생애주기 접근의 정책 필요성 제시
- 신축 우선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기존 건축물의 활용을 우선시하는 정책 전환을 통해 자재 수요 감축·주택 공급 확대·탄소 배출 감소를 동시 추진
  - 기존 건축물의 리노베이션·용도 전환·컨버전(conversion)을 신축보다 우선 적용하는 정책 기조를 EU 차원에서 정립하고 회원국별 이행을 위한 권고 방향을 함께 제시
  - 공실 또는 저활용 사무용 건축물을 사회주택·저렴 주택으로 전환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EU 저렴 주택 이니셔티브와의 정책 연계를 강화

### □ EU 가이드라인은 청정 산업 달·신유럽바우하우스 정책과 연계되어 EU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순환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한 통합 정책 프레임으로 작동

- 청정 산업달\*과 연계되어 핵심 원자재·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축을 통한 EU 건설산업의 회복력·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
  - \* 2025년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, 탈탄소화와 핵심 원자재·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축을 통해 EU 산업의 경쟁력·회복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 프레임
  - 다양한 정책 수단의 연계를 통해 개별 건축물과 건축물 재고 양 차원 모두에서 배출 감축이 가능한 다층적 접근을 제시
  -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과 건축물 탈탄소화의 병행 추진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 도구 간 시너지 창출 방안을 제시
- 신유럽바우하우스는 본 가이드를 기반으로 공실·저활용 건축물의 활용 정책을 확대하고 순환 경제 기반 EU 건축 생태계 전환을 추진
  - 불필요한 신축과 철거를 제한하고 기존 건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신규 자재·에너지 수요를 감축하는 수요 측면 관리 조치를 정책적으로 강화 추진
  - 지난 4년간 시범 프로젝트 지원·가치사슬 행위자 연결·아카데미를 통한 인력 양성 추진

※ 출처 : European Commission(2026.03.27), Commission publishes new guidance to decarbonise buildings and increase their circularity